

## 제임스 김 (James Kim)

1946년 1월 2일~2023년 12월 10일

*브라이언 맥킨레이가 (Brian McKinlay) 쓰*

제임스 김은 1946년 대한민국 남동부 김해시에서 김기운과 추봉선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넷째였으며, 제임스 본인과 예전에 사망한 여동생 한 명을 제외하고 형제들 모두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1940년~50년대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임스는 가족이 공산군을 피해 산을 넘어 도망칠 때 자신의 등에 음식 자루를 짊어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가족은 발효 막걸리를 만들고 *막걸리*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일은 고되었습니다.

김해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제임스는 경상대학교에 진학하여 농업화학과 미생물학을 공부했으며, 1970년에 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제임스는 대학 재학 중 예비역 장교 훈련을 마친 후 정보 장교로 의무 군 복무를 위해 한국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진급하여 약 12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며 인근 북한 주민들의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1973년 군 복무를 마친 제임스는 서울에 있는 한국 인삼 회사에 입사하여 1990년 호주로 이주할 때까지 그곳에서 재직했습니다. 제임스는 리더였습니다. 2년 후, 그는 회사 연구소의 책임자가 되었고 1985년에는 생산 관리자가 되어 대규모 팀을 이끌었습니다.

제임스에게는 두 딸과 손자가 있습니다.

1980년대 어느 시점에 제임스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서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브라이언이라는 호주인을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캔버라에 있는 브라이언을 두어 번 방문했고 1990년에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둘은 1996년에 헤어졌지만 친구로 남았습니다.

1997년 제임스는 또 다른 브라이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브라이언 맥킨레이입니다. 브라이언은 9일 전 제임스와 사별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처음에 캔버라에서 제임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일하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몇 년 후 공공 서비스 부문에 입사하여 2007년 은퇴할 때까지 주로 재무 담당자 및 자산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은퇴했을 때, 둘은 2012년 유럽을 시작으로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그들은 미국 서부와 캐나다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브라이언은 길의 반대쪽을 운전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자전거 타는 사람을 거의 팬케이크처럼 만든 후 제임스는 60일 동안 9,700km를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를 제외하고 제임스는 가족 중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어린 친구와 함께 주일 학교에 갔고 성경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십대 때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 밖으로 몰래 나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가 몰래 빠져나와서 한 일은 교회를 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는 영화를 좋아했고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는 평생 영화광이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그에게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몇 가지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캔버라 교회 공동체에서 브라이언과 만난 후 그는 유해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 리더였던 제임스는 자신을 주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손님맞이, 특히 요리와 서빙을 도왔습니다.

제임스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법을 스스로 배웠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과 브라이언이 최고의 식단을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농산물을 물색하여 찾았습니다. 제임스는 손님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인트 필립스에서 제임스는 판도라의 중고 매장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무거운 가방을 옮기고, 기증받은 옷을 분류하는 일을 했습니다. 몇 년 후, 록 레이머튼 목사는 제임스를 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제임스는 성경에 근거한 단순하지만 통찰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브라이언은 잼버루에 있는 베네딕도회 수도원의 봉헌자(평신도 동료)가 되었습니다. 자매들의 사랑과 온화한 환영은 제임스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으며 그는 그들을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묵상으로 이루어진 베네딕도회의 일상의 리듬은 제임스를 지탱하고 축복하며 수년 동안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제임스는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매일 아침 블랙 마운틴을 오르내리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꽤 최근까지도 그는 평일 오전 6시에 ANU 체육관에 다녔습니다.

제임스를 끔찍하게 죽인 캐슬만병은 매우 희귀한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제임스는 캔버라에서 그 병에 걸린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병으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캔버라 병원의 사무엘 베넷 박사의 결단력, 노력, 그리고 순전한 탁월함 덕분에 제임스는 2018년 진단 후 5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많은 고통을 견뎌냈지만, 생애 마지막 날에는 편안하고 평화로웠으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제임스의 시신은 화장될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그의 유골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제임스의 조상들이 수 세대에 걸쳐 살았던 김해 근처 언덕에 있는 제임스 부모님의 무덤에 안치할 것입니다.

제임스는 식물과 정원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원예에 재능이 있었지만 과학도 잘 알았으며, 장미, 꽃 관목, 과일 나무로 뜰을 뽀뽀하게 꾸몄습니다. 또, 제임스는 줄기가 긴 "미스터 링컨" 장미를 좋아했는데, 그 장미는 오늘 아침에 그의 관 위에 있습니다. 제임스는 푸른 수국을 많이 키웠고 바바라 그리피스는 우리를 위해 교회에 수국을 우아하게 배열했습니다. 바바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잠시 후 자넷이 시편 30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각자 따라서 읊어주세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제임스가 주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제임스는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덤시랜드 밴드를 상상했습니다. 약간 슬프긴 하지만 유쾌하고 시끌벅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덤시랜드 밴드처럼 연주할 수 없지만, 콜린 포브스가 스콧 조플린의 두 곡을 우리를 위해 연주할 것입니다.

콜린에게 감사 드립니다. 예배 마지막 부분에, 제임스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살짝 뛰면서 춤을 춰보세요.

관에는 작은 청동 종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보관되어 있는 자유의 종의 복제품으로 자유를 상징하는 종입니다. 제임스는 브라이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울리기 위해 침대 옆에 종을 두었습니다. 이제 제임스는 자유로워졌고, 종을 울리는 사람은 브라이언이 될 것입니다.

“작은 종을 울려라, 내 사랑,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테니.”